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와  
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  
필

🕒 March 21, 2013

f 좋아요 3

나는 '석학' 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석좌교수'의 칭호를 받잡게 됐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도 '객원연구원'으로 맞이해주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내 정체는 매일 같이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배우러 다니는 '유학생'이라 하는 편이 알맞을 듯하다. 이런 나의 서울 생활이 이달 초순부터 시작됐다.

실은 그 옛날 서울에서 1년 정도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다. 이후로도 한국어와 30년 이상 친분을 쌓았지만 말하는 실력은 떨어지기만 해서, 다시 한 번 확실히 한국어 실력을 익히고 싶다 생각하며 오랜 시간 유학 재개의 날을 꿈꾸고 있었다. 그 꿈이 올해 65세를 맞아 43년간 몸담아온 아사히신문 퇴직을 계기로 정말 실현된 것이다.

그런데 하필 그때 북한이 6·25전쟁 휴전협정을 '백지화' 한다고 선언했다. 설마 하니 다시 전쟁이야 없겠지만, 갈수록 발언이 격해지는 북한의 모습에 '진짜로 무슨 일을 벌이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 와중에 '서울에서 쓰는 편지'를 전하게 됐는데, 오늘은 우선 나를 초청해 준 박근혜 대통령의 2월 25일 취임식 얘기부터 시작할까 한다.

TV로 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다. 국회의사당 광장에 무대가 놓이고 첫 여성대통령이 취임연설을 했다. 나는 추위를 참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3년 6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 한여름 내리쬐는 태양 아래 더위에 견디던 날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숙적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이 치러진 날이다.

그때도 같은 얼굴들이 있었지만, 취임식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전 대통령들의 모습이다. 전두환,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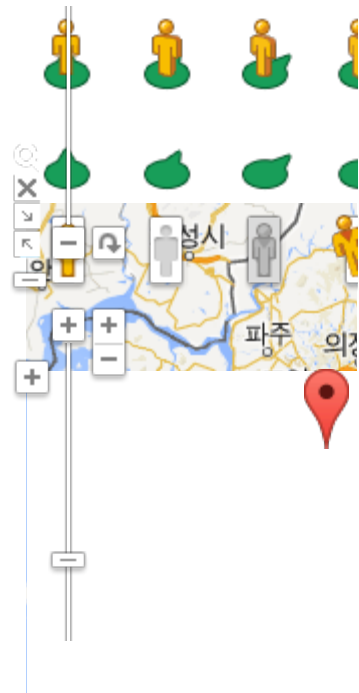
연이어 군사정권을 이끈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그와 겨루며 민주화의 기치를 흔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이들이 보여준 격렬한 권력투쟁은 문자 그대로 생사를 건 싸움이었다.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애하는 딸이 드디어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고 현대사의 주역들 앞에 선서하기에 이르렀다. 드라마보다도 극적인 장면이었다.

그리고 보니 7, 8년 전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는 나의 물



취임식을 마치고 광화문에서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음에 “한국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 이라 고개를 젖던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며칠 전 방문했을 때 이 이야기를 본인에게 했더니 “하하, 내가 틀렸었네요” 라며 파안으로 웃는다. 박 씨가 출마 전 인사 왔던 일에 마음이 좋았는지 부친과의 ‘인연’ 을 넘어 “뚝뚝하니까 잘 할 것” 이라 예상하는 것이었다.

생각하면 내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것은 1979년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측근에게 암살되기 몇 개월 전이다. 유학으로 왔을 때는 전두환정권 시절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택연금 상태였다. 격렬한 시대변화에 감회가 새롭다.

북한과의 긴장관계만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작금의 한국이지만, 지금 내가 롤케익에 커피를 맛보며 원고를 쓰고 있는 카페에서는, 그런 일을 신경쓰는 듯하지도 않은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에서는 많은 카페에 무선인터넷 환경이 갖춰져 있어 이를 이용해 메일로 원고를 보내는 것도 우아한 일이다. 앞으로 반년 동안 머무를 예정인 서울에서 새 대통령의 나라는 내게 어떤 표정을 보여줄까. 무척 기대되기도 하고, 조금 불안하기도 하다.

##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 국제 교류센터 시니어 펠로우

1948년 출생. 1970년부터 아사히신문 기자로 활동. 정치부장, 논설주간 등을 거쳐 주필을 역임했으며 2013년 1월에 퇴직했다. 저서로는 ‘한국과 일본국’ (故권오기 씨와의 대담) 등이 있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주필 서강대학교

More AAA



## 관련기사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⑩정치는 티격태격, 사람들은 ‘다른 세계’

August 09, 2013

얼마 전, 한국 신문을 보다 “응?” 했다. 일본사람 지인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봤나 했는데, 설명을 보니 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국 외교부 엘리베이터에서 나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⑨즐겁든 까, 신촌에서의 하 생활

July 26, 2013

나의 서울생활도 어느덧 4개 반. 정계는 요즘 여야격돌로

 Share

 좋아요 

3



 Facebook 소셜 플러그인

보는 서민들의 눈은 냉담하다. 하숙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나는 자취가 서툰고 외식만으 나날이 대화할 상대도 있었으 에서 하숙하는 이유가 거기

 좋아

##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⑧ 대학생들의 지적 교류, 한관계에 희망 보

July 05, 2013

여성스러움이 감도는 디자인 분홍 재킷, 빛깔이 고운 노랑 선을 흠어 태극기를 연상하 움을 자아내는 보라 재킷... 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정치’ 로 중국을 매료했다고 다.

 좋아

##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⑦강연, 원, 공연. 세 가지 ‘고엔’ 으로 젊음 되찾다

June 20, 2013

강연, 공원, 공연. 한국어 특 선지 일본어 발음은 다 똑같 주는 그런 ‘고엔’ 의 연속으 된’ 한 주였다.

 좋아

##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⑥ ‘배 (拜啓) 김대중 선비 님’ 나를 비판하는 기사에 답장

June 03, 2013

한국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가 있다. 조선일보 전 주필( 김대중 씨다. 김 고문은 언( 로 지금도 조선일보에서 칼( 중 한 편에서 내가 비판의 다

 좋아

